

누정편액(樓亭扁額)에 반영된 자연인식과 서정 -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을 중심으로 -

이현우* · 김재식**

전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The Nature Cognition and Lyricism Reflected in the Pavilion Tablets - Focusing on the Pavilions in the Damyang Poetry Culture Area Built during in 16th Century -

Lee, Hyun-Woo* · Kim, Jai-Si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the semantic study on the nature cognition and lyricism of pavilion builders as reflected in the pavilion tablets in the Damyang poetry culture area built during 16th century. The names of pavilions, pavilion writings and “poetry with given theme” were studied by actual site visits. The view on the nature and aesthetic awareness of the pavilion builders at the time were explored together with surrounding landscapes.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Pavilion names borrowed phrases from the famous historical events left by the sages. Or, they took the compliment on the beautiful nature surrounding or the academic achievement of pavilion owners as the theme, then elaborated them with thinking based on Sung Confucianism.
2. The writings of pavilion literature were the idealistic view on the nature. They think the nature and human as “object and ego are one, object and ego communicate each other, object and ego become one”.
3. The nature in the 16th century was the “principle of birth-death-grow-wither” for the intellectuals. They thought that the nature is the ultimate place to return for the realization of life with self-respect.
4. The introduction of fairy land among literary activities in the pavilion was the symbolic means healing the frustrated ego. It was confirmed that they temporarily entrusted their depressed feelings by borrowing the fairy land, far from the reality. The pavilion was the space to escape from the reality and soothe the anger and discord in the reality.
5. The pavilion literature in the Damyang poetry culture area during 16th century sang their pleasure of enjoying the beautiful scenery in the rural area using their social status. The literary works also contained their agony due to the frustration of difficulty in the realization of ideal.

When the intellectuals, who already mastered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came down to rural area, built pavilions at the location with beautiful scenery, and spent time while composing poetry, it was an escape from the burden that they should take the social responsibility as the model intellectuals of the society. The pavilions in Damyang poetry-culture area during 16th century were the idealized conceptual world and the space of awareness reflecting the philosophy and thinking of the time.

Key Words : Pavilion Tablet(NuJeong Signboard), Sarim(the Circle of Confucian Scholars), Nature Cognition, Lyricism, Poetry(Si-Ga) Culture Area, 16th Century

† Corresponding Author : Lee, Hyun-W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Phone : +82-11-622-3222, E-mail : e3222@lycos.co.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편액에 반영된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이다. 대상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누정명·누정기·누정제영시 등을 파악한 후 주변경관을 중심으로 조영 당시 조영자가 향유했을 그 시대인의 미의식과 자연관이 배태된 조영의식에 관해 접근한 바, 구명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1. 누정명은 성현이 남긴 고사에서 유래한 문구의 차용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예찬 및 조영자의 학덕을 제재로써 성리학적 사유를 교직해 넣은 내용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산수예찬은 누정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연구대상지의 모든 누정에서 발견된 제 1의 보편적 제영요소로 파악되었다.
2.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에 관한 자연합일[物我一體·交融·合一]의 이상적인 자연관이었다.
3. 16세기 지식인에게 자연은 생장소멸(生滅消長)의 원리이자 자존적 삶을 위한 궁극적 귀의대상이었으며, 특수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사대부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명분을 일깨운 작품들을 탄생시킨 원천으로 작용했다.
4. 누정에서 행한 문학행위 중 선계(仙界)의 도입은 좌절된 자아에 대한 상징적 치유수단이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계를 빌어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가탁했기에, 누정은 현실의 갈등과 울분을 달래는 탈속의 공간임을 함의한다.
5. 16세기의 담양지역 시가문화권의 누정문학은 신분적 기반을 활용하여 향촌생활 중 유흥상경의 흥취를 노래하며, 이상실현의 좌절에서 오는 고민이 동반된 작품들로, 좌절된 자아를 문학을 통해 승화시켰음을 확인하였다. 문사철을 섭렵한 지식인이 낙향해 풍광이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소요하며 시를 읊는 것은 모범적 지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던 절대적 부담감에서의 탈출구였다. 연구대상지인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은 이상화된 관념세계이자 이념과 사유가 반영된 의식의 공간이었다.

주제어 : 누정편액, 사립, 자연인식, 서정, 시가문화권, 16세기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누정이란 누각과 정자를 함께 이르는 말(이하 ‘누정’이라 통칭)로 유관(遊觀)의 근거지였다. 고려 중엽에 활성화된 누정문화는 16세기 향리에 은일한 사립이 누정을 짓고 풍류를 즐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단지 재력파시나 풍류를 위한 곳만이 아닌 지향하던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공간으로서, 문학적 흥취를 일으켜 시단을 형성한 문화의 산실이었기에 명망 있는 인사들의 시문이 편액화되어 누정 곳곳에 내걸렸다. “*委巷詩人 張混은 「而已廣集 玉溪雅集帖」*序에서 아름다움은 절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드러난다(美不自美 因人而彰)고 했다(이종목, 2006).” 공간은 시각적 감흥을 일으키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공간에 머무는 이에게 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재해석된다(Tuan Yi-Fu, 1999). 문학이 향유됐던 16세기 누정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자연스레 시 짓기 좋은 장소로 인식되었다. 즉, “누정가사의 창작공간인 누정은 은일공간으로 부각된 실경 속의 유토피아(권정은, 2003)”이며, “자연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신적 여유를 제공하는 컴퓨터로서 자연 경관과의 유기적 결합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 매우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다(신상섭 등, 2009).” 이에 본 연

구는 16세기 담양지역(현재의 시가문화권)에 은일한 호남사립이 누정조영 당시 향유했을 공간인식과 서정에 관한 고찰로서, 누정에서 보았을 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자연과 자신을 합일코자 했던 자연관과 미의식이 내재된 조영의식을 구명코자 한다.

2.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역사상 누정건립이 가장 활발했던 조선중기 중 현재 담양 시가문화권¹⁾이라고 불리는 특수권역의 16세기 누정에 주목했다. 사화라는 암울한 시대상황으로 본의 아니게 초야에 문헌 신지식인들에 의해 결성된 독특한 집단(歌壇)에서 잉태된 누정문학은 그 시대의 누정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비중을 점한다. 특히 담양의 누정은 문학의 산실로 가사문학의 꽃을 피웠던 호남가단의 주황동무대로서, 면양정가단의 ‘면양정’과 식영정가단의 ‘환벽당·식영정·송강정’ 및 소쇄원가단의 ‘광풍각’ 등이 연구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누정의 기능 중 ‘학문강화·사회장소·시단구실’을 겸했던 것을 당시엔 으뜸으로 꼽았기에, 여타 가단보다 수많은 누정제영으로 명성 높았던 다섯 곳을 간추렸다. 단, 담양 시가문화권 내의 문화재로 지정된 주요 누정 여덟 곳 중 조영시기가 16세기를 벗어난 ‘독수정(고려말) 및 풍암정·명옥헌(17세기)’ 등은 연구대상지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표 1).

표 1. 연구대상지 현황

	누정명(亭呼)	조영시기	조영자	누정 소재지	문화재지정 현황	문화재지정일	대상지 적합
1	독수정	1390	전신민	전남 담양군 남면 연천리 산91 (산음마을)	전남기념물 제 61호	1982. 10. 15	×
2	면양정	1533	송 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402	전남기념물 제 6호	1972. 08. 07	○
3	광풍각(소쇄원)	1539	양산보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 등 (지석마을)	명승 제 40호	2008. 05. 02	○
4	환벽당	1555	김윤제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 (환벽마을)	광주기념물 제 1호	1972. 01. 29	○
5	식영정	1560	김성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별피, 성산마을)	전남기념물 제 1-1호	1972. 01. 29	○
6	송강정	1584	정 철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74	전남기념물 제 1-2호	1972. 01. 29	○
7	풍암정	1602	김덕보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718 (금곡마을)	광주문화재자료 제 15호	1990. 11. 15	×
8	명옥헌	1619	오이정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1번지 등 (후산마을)	명승 제 58호	2009. 09. 18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편액에 반영된 당대인의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이다. 대상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누정명·누정기·누정제영 등을 선행 파악했다. 이로써 얻어진 결과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누정을 중심으로 조영자가 향유했을 미의식과 자연관에 접근했다. ‘누정명의 유래·누정제영의 분석’ 및 이 두 요소에서의 추출인자를 바탕으로 ‘경관성 및 조영의도를 분석해 누정조영에 갖는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한 상관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누정의 장소성에 주목했다. 텔프²⁾의 장소성 이론에 대입했을 때, 누정은 자아의 실존에서부터 관찰자에게 장소성을 전달하는 체험적 공간이 된다. 자연으로의 외부성과 자아에게로 되돌아오는 내부성이 합일된 장소의 중심에 누정이 위치해 가교 역할을 한 것이다. “공간을 장소로 만들 때 서양은 시각적 질을 높여 만드는데 반해, 한국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의미론적 분석만이 전통공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브리태니커가 정의하는 의미론은 철학·논리학·언어학적 관점에서 의미를 연구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이지만 어떻게 의미를 끌어내는가를 설명함은 같다. 논리학자들은 과학적 명쾌함을 적용해 중의성(重義性)이 없는 이상에 기초한 의미론을 증명코자 한다. 이론은 참·거짓에 기초해, 진술은 ‘분석적으로 참’ 혹은 ‘경험론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1 + \chi = 3$ 에서 $\chi = 2$ 임을 앓은 후자이지만, 참도 거짓도 아닌데 의미를 갖는 표현(ex. 손을 씻어!)을 설명치 못함을 지적한다. 의미는 심리현상이므로 직접 볼 수 없고 내성적 방법으로도 접근키 어렵다(이현우 등, 2009).” 때문에 조영 당시 탄생되어 여태껏 누정 내부에 편액으로 걸려 있던 기록들을 분석 후, 다시 역으로 접근하여 원래의 의도를 구명하는 귀납적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조영 당시 느꼈을 미의식과 자연관이 배태된 조영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4. 연구사

선행연구로 첫째, 조정학적 연구로 신상섭(2009)은 영모정의 보편·특수성을, 노재현 등(2008)은 연주정 12경의 외적 형식과 상징의미를 재해석했다. 안계복(2004)은 누·정·대가 산수유

람 거점임을, 이원호(2003)는 한시용사가 내면세계에 의해 표출된 방법을, 노재현(2002)은 강호가사에 나타난 풍류경관상을, 이민정(1999)은 시문요소를 통한 풍류와 자연관을, 진승범(1996)은 정자 존재 유무에 따른 이미지 상관성을 구명했다. 둘째, 한문 및 국문학적 연구로 박종우(2008)는 16세기 호남누정제영을 중심으로 누정공간과 제영의 문학사적 의미를, 권정은(2003)은 누정가사에 구현된 공간인식과 미적체함을, 박준규(2003)는 정철의 누정제영을 통해 누정문학이 갖는 국문학적 가치를 재고했다. 특히 ‘누정가사문학’에 관한 연구로는 안장리(2007)의 면양정30영을 통한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 김중서(2005)의 16세기 호남시단 시의 자연스러움, 한창원(2005)의 16세기 재지사립 강호시조의 양상, 김용철(2002)의 16세기 강호시조의 낭만적 성격, 최재남(2001)의 16~17세기 향촌사립의 시가문학, 최진원(1988)의 송강시가의 풍류와 표상, 김창원(1997)의 16세기 강호시가의 변모 등이 있었다. 셋째, 건축학적 연구로 정명준(2007)은 담양누정과 누정문학의 상관성을, 윤일이(2006)는 호남사립의 세계관이 누정건축에 반영된 바를, 정철성(2000)은 무등산 시가문화권의 입지적 특성을, 임영배(1996)는 누정건축을 의미론·역사·구조적 고찰로 나눴으며, 박언곤(1989)은 누정에 의도된 심미성을 논했다. 넷째, 미술사학적 연구로 이상식(1997)은 전남·북의 누정과 사립의 관련성을, 한동진(1995)은 조선중기 사대부의 자연관을 논했다.

앞서 기술한 누정과 관련된 무수한 선행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정에 내걸린 편액만을 조사하여 배태된 조영의식을 다룬 연구를 찾기란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대상지로 선정된 누정의 편액만을 수집 후, 과거의 언어를 현재어로 해석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누정조영자의 작정관 및 누정에서 소요하며, 아름다운 시가문학을 탄생시켰던 제영자의 심리분석에 집중하여, 누정편액과 누정조영에 갖는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차별성을 두었다.

II. 공간의 의미화, 편액

누정의 공간구조와 의미를 형상화한 현관은 글씨를 쓴 널빤지를 걸었다는 뜻이고, 편액은 문 위에 써놓은 글씨란 뜻이다.

약속한 듯 고건축에는 편액이 걸려 있고, 한자를 쓰던 시대의 산물이기에 우리에게 거리감이 있다. 유래는 불분명하나 “문헌상 한대 소하(蕭何)가 서서체에 궁궐에 ‘창룡·백호’라고 써 건물명을 제서했다고 한다. 한자가 전해지며 편액 풍습도 유입됐을 것(김일두, 1979)”이란 말에서 최소 한 대 이전부터 존재했음이 추론된다. 건물 치장의 주 수단이었기에 당시 ‘주생활·건물명·내력·서자(署者)·제작법’까지 구명 가능하다. 화기를 막고자 승례문 편액을 세로로 쓴 구전은 편액이 단순한 표기 이상의 공간의미화임을 상징한다. 누정편액은 ‘누정명·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으로 분류(표 2)되는데, 누정에서 행한 문학행위 및 창작물을 통칭해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이라 칭하기로 한다. 누정명은 정면처마 밑에 거는 이른바 현판이다. 지역의 으뜸가는 누정이란 별칭 호남제일정을 갖춘 피향정(그림 1)과, 조영자의 개별성이 담긴 사계정사(그림 2) 같은 예를 빼고는 관용적으로 석자(三字)다. 현판은 내걸고 누구나 열람토록 한 공식적인 글로 갑론을박의 대상이었을 것임에 이름에 부여된 철학적 함의에 주목했음을 반증한다.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은 ① 누정기(상단에 매단 핵심인 건립배경), ② 제영시(출입소인 목객 수창시), ③ 상량문(공사의 내력·공역·일시 등 기록), ④ 주련(기둥·벽에 장식한 한시), ⑤ 소지(경관·감회의 짧은 글), ⑥ 서(정제된 구법으로 장단구를 운용한 글), ⑦ 공덕문(불가에서 시주를 받으려 가가호호 돌리는 것에서 유래) 등 일곱 가지로 구분된다(오용원, 2006).”

표 2. 누정편액 분류

분류	종류	내용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	현판(懸板)	건물의 정면 처마 밑에 위치한 누정의 명칭
	누정기(樓亭記)	기문(記文), 重建記·移建記 포함(건립배경)
	제영시(題詠詩)	한시, 국문가사(산수승경이나 주인공에 음영)
	상량문(上樑文)	누정을 축조하면서 상량(上樑)할 때 붙이는 글
	주련(柱聯)	누정의 기둥에 매단 글귀(한시)
	소지(小識)	압축된 언어로 누정의 경관과 감회를 기술
	서(序)	산문과 운문을 혼용한 문체(출현빈도 낮음)
	공덕문(功德文)	공덕을 기린 글(佛家에서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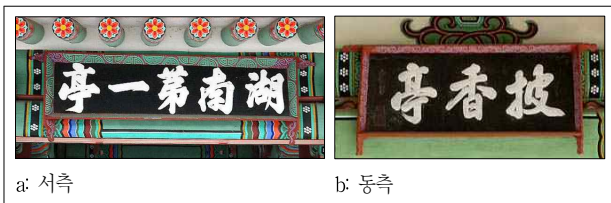


그림 1. 피향정의 현판



그림 2. 사계정사의 현판

III. 결과 및 고찰

1. 16세기 조선과 호남사림

16세기는 조선다움의 형성기로 기존질서(고려유풍)가 성리학적 질서로 교차되던 과도기며, 적잖은 사대부가 초야에 묻힌 비운의 시기다. 이들은 현실에서 벗어날 자유공간이 필요했기에 선계를 꿈꿨고, 상상의 세계로 비상코자 한 욕구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흥중에 응어리진 울분을 발산했다. “호남이 전라도의 별칭이 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로 중소 지주로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향촌에 뿌리내린 시기다. 이는 전라도가 행정단위 및 역사·문화적 공동체로서 지역정체성을 가졌음을 뜻한다(고영진, 2000).” 호남사림은 건국이후 절의를 고집했거나 정쟁 연루로 받은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한 사대부가의 후예들이다(고영진, 2007). 이들이 “전라도를 택한 이유는 원거리에 있어 화가 쉽게 미치지 못하면서 기후가 좋고 물산이 풍부해 은둔의 최적지였기 때문이다(한창원, 1997).”

2. 누정문학과 산수형상화

문학작품은 그것을 접하지 못했더라도 결코 몰랐을 경험에 가시성을 부여한다(변학수, 1999). 누정문학은 서정에 탐닉하던 당시 지식인의 잠재된 문학성에 과를 일으켰다(오용원, 2007). 문학을 발로로 유학자로서 품모와 권위를 지키면서도 암울한 내면을 표현해 화를 삭이며 나름의 정신긴장을 지켰다. “관로(官路)합보다 초야에 묻혀 누정을 짓고 내면과 학문을 닦음이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심성을 고양하는데 적시적지(適時適地)가 산수였다(금장태, 1995).” 성현들이 산수를 가까이 하고 군자가 산수를 좋아한 까닭을 차용함으로써 그 위상을 높인 일례가 「林泉高致 山水訓」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君子之所以愛夫山水者, 其旨安在. 邱園養素 所常處也. 泉石嘯傲 所常樂也. 漁樵隱逸 所常適也. 猿鶴飛鳴 所常親也. 塵囂纏鎖 此人情所常厭也. 烟霞仙聖 此人情所常願而不得見也. 君子가 무릇 산수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은 인간의 바람을 키우니 항상 거처하는 바이며, 석천은 노래하고 거오하니 항상 즐기는 바이다. 고기 잡고 나무하며 은일함은 항상 즐기는 바이며, 원승이와 두루미가 날고 우는 것은 항상 관망하는 바이다. 속세의 시끄러움과 속박은 사람들이 항상 싫어하는 바이며, 연희의 신선과 성인들은 사람들이 항상 원하지만 능히 볼 수 있는 바이다³⁾.

한시는 사상과 감정을 절제된 언어로 담아낸 한문학의 꽃이며, 시인에게 산수는 사람과 사물의 정신이 교감해 일

체감을 드러낸 세계이다(심경호, 2006). 누정은 주변경물을 집약한 미적 중심체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거리를 형성함으로써 산수미를 인식하는 토대가 된다. 따라서 누정한시의 경우, 경물과 관련된 시인의 정서를 형상화할 수 있다(김동준, 1994). 시조는 한민족의 얼을 담은 민족 문학인 반면, 가사는 기술 능력을 갖춘 누구나 참여한 장르로 시조보다 자유분방했고 자연형상화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산림에 처한 사람에게 한시가 익숙했을 것임에도 은거의 정회를 대부분 시가에 담은 것은 형식과 율격이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성기옥, 1987). 16세기의 누정문화는 강호가사라는 장르 내에 특히 누정을 중심으로 한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촉매역할을 했다(권정은, 2003).

3. 담양과 호남가단

16세기 누정은 사화를 피한 은신처이자 문단을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진 시인들의 태좌(胎座)이며 시단형성의 기저다. 풍류모임은 연회보다 시회가 중심이어서 시를 통한 집단적 교류는 승문사대부의 보편화된 문화였다(신은경, 1995). 가단의 일의적 개념은 '노래 부르는 장소 및 특수사회'가 포진하는데, 시인의 집단이자 시가활동을 편 무형의 공간이다. 특히 호남가단은 타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게 누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활동이 포착되는데, 호남이란 지명은 가단을 일일이 열거키 번잡하고 위치도 조금씩 달라 부르기 쉬운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여기서 호남은 지역적 위치가 아닌 16세기 누정가단의 선봉에 섰던 담양지역 시단만의 고유명사이다(정익섭, 1988). 담양지역에 밀집한 다섯 개의 연구대상지 누정들은 여러 고지도 속에서도 명백한 위치에 표기됨으로써 당대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는데, 지도가 제작되던 때에도 이들의 존재감이 읍지의 관아 못지 않았음이 추론되는 부분이다(그림 3).



그림 3. 고지도 속에서 찾은 연구대상지
(자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4. 대상지 분석

1) 면양정(倂仰亭, 1533)

倂有地, 仰有天. 亭其中, 興浩然. 招風月, 挹山川. 扶藜杖, 送百年. 굽어보면 땅이요, 우러러보면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를 짓고 흥취가 호연하다. 바람과 달을 불러들이고, 아름다운 산천을 끌어 들여, 명아주 지팡이 짚고 다니며 한평생을 보내리라.⁴⁾

누정 내부의 좌측마루 위에 걸린 「면양정삼언가(그림 4)」 관상운은 누정명의 유래를 보여준다. 면양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에게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것(仰不怪於天, 俯不作於人)⁵⁾이 큰 즐거움이라고 함에서 유래했다. 완벽한 청정무구를 뜻하는 면양은 조영자 송순의 수신이요 가치관이 투영된 어휘다. 현관(그림 5)은 명필 성수침이 썼는데 현관을 받으러 송순이 직접 파주까지 찾아간 일화가 전한다. 면양정 일대의 가경과 전망의 웅장함은 수많은 시객을 끌어들이어 가단형성에 일조했다. 출입인사들은 풍류의 멋을 지닌 사람으로, 자연경계에 접하면 절로 탄상의 노래가 나오고 연회의 흥이 도하면 화시하였다. 정황에 따라 풍류로 응대할 줄 아는 멋의 지식인들이자 시조작가들이었다. 면양정은 강호제현들이 학문을 논하며 시를 읊던 시가문학의 산실이자 담양누정의 시원지다.

누정 내부에는 면양정삼언가, 김인후의 시(그림 6), 임억령·고경명의 「면양정30영」, 이안눌의 「차벽상운」 등이 걸려 있다(그림 7). 다음은 「양자점운」에 차운한 이안눌의 시로 주변자연을 살피는 것으로 운을 띄웠는데, 면양정의 가경을 대하고 상대적으로 늙은 자신의 처지를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한 서정시다.

廣平鄉里舊林阜, 登眺偏忘簿領勞. 西望川原何處極, 南來形勝此亭高. 才慙謝守裁詩妙, 氣比山公仗酒豪. 却向秦雲搔白鬢, 秋風吹葉落蕭颯. 높고 평평한 마을에 옛 숲이 높이 솟았고, 올라와 바라보니 기록하기 힘들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네. 서쪽을 바라보니 들판의 끝은 어디인가, 남쪽에 와서 보니 뛰어난 경치이 정자가 으뜸이네. 재주가 없어 글짓기가 부끄러웠으나 시 짓기가 잘되니, 기개는 산에 비할 만큼 높으나 술을 많이 마심은 자랑거리가 못되네. 도리어 저녁 구름을 향해 흰 머리를 굽으며 걱정이 많으니, 가을바람에 지는 잎을 보니 쓸쓸하고 번거롭네.⁶⁾

송순은 만년에 고향땅에 은거해 세 칸의 누정을 지었는데, 한 칸에는 자신이 두 칸에는 각각 달과 청풍을 들고고보니 강산은 들일 자리가 없어 병풍처럼 둘러 두었다는 정취는 자연의 일부가 된 조영자의 모습이다. 초가는 청렴한 안빈낙도의 상징으로 당시 선비의 삶을 대변한다. 초장은 자연에 은거한 청빈을, 중장은 물아일체의 경지를, 종장은 둘러친 병풍을 연상시키는 자연에 대한 절묘한 묘사다. 초기의 면양정은 초라한 초정으로 풍우를 겨우 가릴 정도였으나 풍류운치는 당대 명사들에게 흠모되었던 바, 그 당시의 정황을 면양정기는 다음처럼 기록한다.



그림 4. 면양정삼안가 편액



그림 5. 면양정 현판



그림 6. 김인후의 시 편액



그림 7. 면양정 내부 편액

十年을 經營하야 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淸風 한 간 맛져두고, 江山은 드릴 티 업스니 들너 두고 보리라. 십년이나 기초를 닦아 보잘 것 없는 초가집을 지어내니, 달 한 간과 맑은 바람도 한 간을 맡겨 두고, 청산과 맑은 강은 들여 놓을 곳이 없으니 주위에다 두고 보리라.⁷⁾

다음은 면양정가 서사로 '사계의 변화, 일곱 개 산의 원근⁸⁾, 강물이 흐르는 모양과 하얀 모래, 달밤에 고기 잡는 어부의 노래, 하늘을 나는 청학과 기러기, 가마 타고 좁은 길을 다니는 모습, 술이 익으면 벼를 불러 마시며 임금의 은혜로 강산풍월을 거느린 신선이 되어 태평세월을 구가하며 이태백처럼 풍류를 즐기는 기쁨' 등이 묘사되었다.

너러바회 우회 松竹을 해하고 亭子를 언척시니, 구름 뜬 靑鶴이 千里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玉泉山 龍泉山 너린 물이, 정자 압 너븐 들히 兀兀히 퍼진 드시, 넘쳐든 기노라 프르거든 회디마나, 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김을 칩혔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야바, 들는 듯 쓰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너러바회 위에 송죽을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란 청학(면양정)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 벌린 듯,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진 듯이, 넓거든 길지나 말지 푸르거든 회지나 말지,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어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⁹⁾

심수경은 면양정가를 “산천·전야의 그윽하고 광활한 형상을 서술했으며, 누정과 길의 높고 낮음과 꼬불꼬불한 모습 및 사시조석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倪仰亭歌 則鋪敘山川田野幽 壘曠闊之狀, 亭臺蹊徑高低回曲之形四時朝暮之景無不備錄)¹⁰⁾”고 호평했다. 다음은 면양정의 봄·겨울의 풍경으로 누정에서의 정회를 서정적 어휘로 그렸다.

<春> 흰구름, 브흰 煙霞 프르니는 山嵐이라, 千巖 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희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의 쉼거니 廣野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과 섯거디어 細雨조차 쉼리난다. 흰구름 뿌

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로구나,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날아오르거니 내려앉거니, 긴 하늘로 떠났다가 넓은 들로 건너갔다,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질기도 하고, 석양과 섞여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冬> 草木 다 진 후의 江山이 미물커늘, 造物리 현스하야 氷雪로 꾸며내니, 瓊宮 瑤臺와 玉海銀山이, 眼底의 버러세라, 乾坤도 가을열사, 간 대마다 景이로다.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이 묻혀 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같은 설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하늘과 땅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¹¹⁾

송순에게 강호는 세속과 대비된 성스러운 공간이며, 자연철서를 따르는 것이 이상적 삶으로 인식되었다(김신중, 2001). 자신을 신선으로 표현한 것은 현실적 제약을 초월기 위해 유미적 자연형상에 침잠함으로써 서정적 자아를 발견하고 자유공간으로 비상코자 한 의식의 표현이다(윤귀섭, 1969). 이러한 미적 경험을 통해 자연과 누정조영자 간의 거리를 극복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즐거움으로 흥중의 갈등을 잠정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면양정가의 결사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의 생활상을 그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人間을 쉼나와도 내 몸이 저를 업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비름도 허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척 좁고 고기란 언척 낚고, 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쉼려뇨, 아츰이 낮보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나, 오늘리 不足커니 來日리라 有餘하라, 이 뉘히 안자 보고 더 뉘히 거러 보니 煩勞호 모습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쉼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다만 호 靑藜杖이 다 드되여 가노미라.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몸이 한가로를 저를이 업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잡아두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떨어진 밤은 언척 좁고 고기는 언척 낚고, 사립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아침이 모자라거니 저녁이라고 싫겠는가, 오늘이 부족하거니 내일이라고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이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버릴 일은 전혀 업다, 쉼 사이도 없는데 길이나마 전할 틈이 있으랴, 다만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 하나가 다 무더져 가는구나.¹²⁾

다음은 임억령의 「奉次企村韻」으로 속세에 대한 번뇌를, 단지 가득한 술로 치유코자 한 괴로운 심경을 묘사했다.

才盡詩難就, 年衰睡不成. 塵埃爲客恨, 江海憶鄉情. 山擁寧辭望, 葵枯肯廢傾. 窮愁何處瀉, 官釀滿壺清. 재주가 다하니 시 짓기가 어렵고, 나이 드니 잠도 이루기 어렵네. 속세는 나그네에게 한이 되고, 강과 바다는 고향에 대한 정을 안겨주네. 가고 싶어도 산이 에워싸 고향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해바라기는 말라서 죽어만 가네. 곤궁하여 수심에 잠긴 마음 어디다 쏟아 버릴꼬, 관가의 술단지에는 맑은 술만이 가득하네.¹³⁾

2) 광풍각(光風閣/소쇄원, 1539)

계정으로 불리는 광풍각은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휴식·독서·바둑·술·노래·거문고·낮잠 등’ 온갖 휴식과 유희의 풍류가 벌어진 공간이다. 황정건의 「염계시(濂溪詩)」 서에 “용릉 땅의 주무숙은 인품이 매우 고결해서 가슴속이 쇠락한 것이 마치 비 갠 뒤의 바람과 달 같았다(春陵周茂叔 人品甚高 胸中灑落如光風霽月)¹⁴⁾”에서 유래된 명칭(그림 8)이다. 또한, 소쇄원의 소쇄는 깨끗하고 시원함을 뜻하는 것으로, “은자는 굳은 지조로 속세를 뛰어넘는 풍채가 있어야 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높고 깨끗한 사상을 지녀야 한다(夫以耿介拔俗之標 灑灑出塵之想)¹⁵⁾”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광풍각을 고찰하려면 소쇄원의 창건연대를 밝힘이 중요한데, 그 실마리는 「소쇄원제초정」에서 찾을 수 있다.

我生之歲立斯亭,人去人存四十齡. 溪水泠泠碧梧下,客來須醉不須醒. 내가 태어나던 해에 이 정자를 세워, 사람이 오고 가고 마흔 해로다. 시냇물 서늘히 벽오동 아래로 흐르니, 손님이 와서 취하고는 깨지도 않네.¹⁶⁾

꽃은 바람을 맞아 향기를 풍긴다는 것으로 한가하고 자유로운 서정을 다룬 「灑灑亭韻」은 계정의 바람과 폭포를 소재로 가볍고 깨끗한 소쇄원의 분위기를 묘사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空翠輕吹面,懸流淨洗心. 花風香谷口,雪月霽山陰. 自領閒中趣,何關病裏吟. 池塘夢已久,回首變鳴禽. 푸른 하늘 바람은 얼굴에 가볍게 불어오고, 폭포는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네. 꽃바람은 골짜기에 향기를 풍기고, 눈과 달은 산 북쪽에 맑게 개었네. 스스로 한가한 가운데 취미를 거느리니, 병든 몸에 읊조려도 무슨 상관있으리. 연못을 그리는 마음 벌써 오래되었고, 머리를 돌리니 새 울음소리도 바뀌었네.¹⁷⁾

계류의 중심에 놓인 광풍각은 일종의 사랑방으로 머리맡에서 개울소리를 듣는 선비의 방이다. 소쇄원 48명 중 2명 「침계문방」은 광풍각이 시제가 된 것(그림 9)으로, 마치 시나를 베고 있는 듯한 모양을 한 글방이란 뜻이다. 동창이 밝은 계곡주



그림 8. 광풍각의 현판과 내부 편액



그림 9. 枕溪文房 (자료: 소쇄원 홈페이지)

변 문방에서 느끼는 심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窓明籤軸淨,水石映圖書. 精思隨偃仰,妙契入鳶魚. 사방창문 흰히 밝아 책장 글씨 또렷하고, 바위 위에 잠긴 물에 서책들이 비쳐 있네. 마음조차 맑아지니 더불어서 활달하고, 대자연의 이치인양 어울림이 오묘하네.¹⁸⁾

소쇄원은 청각적 정원이며 명암이 공존하는 입체적 정원이며 시적감흥을 일으키는 문학적 정원(김복렬, 2006)이며, 시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당대 지식인들의 세계관이 동시에 녹아든 공간이다(윤일이, 2005). 자연을 정복하거나 경영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 속에 행복하게 파묻히고자 하는 온정을 심어 놓은 모습이기도 우리는 소쇄원에서 조선시대 원림의 미학이라는 하나의 미적규범을 배우고 감탄한다(유홍준, 1992). 다음은 대숲의 바람과 소쩍새 울음, 옅은 그늘과 밝은 달, 취중에 읊은 시와 노래가 소재가 된 김인후의 「소쇄정즉사」이다.

竹外風清耳,溪邊月照心. 深林傳爽氣,喬木散輕陰. 酒熟乘微醉,詩成費短吟. 數聲聞半夜,啼血有山禽. 대숲 너머 부는 바람은 귀를 맑게 하고, 시냇가의 밝은 달은 마음 비추네. 깊은 숲은 상쾌한 기운을 전하고, 옅은 그늘 흘날려라 치솟는 아지랑이 기운. 술이 익어 살며시 취기가 들고, 시를 지어 흥얼 노래 자주 나오네. 한밤중에 들려오는 처량한 울음, 피눈물 자아내는 소쩍새 아닌가.¹⁹⁾

3) 환벽당(環碧堂, 1555)

환벽이란 ‘푸르름을 사방에 가득 두른’이란 한자어에서 유래되었다. 김윤제가 낙향하여 세월의 수상함을 지켜보며 옥영에 힘쓰려 건립한 누정이다. 고경명은 「유서석록(遊瑞石錄)」에서 당호를 신잠이 붙여 편액했다 했는데, 훗날 송시열은 환벽당을 방문했을 때 제액을 썼다(그림 10).

다음은 노옹의 유유자적을 그린 임억령의 시로, 환벽당은 안개와 구름에 가려 있다. 거문고 소리는 물소리와 겹쳐서 나고 취객이 식영정으로 돌아간 후 모랫길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가마소리만 들린다. 이때의 취객은 임억령으로 김윤제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거문고를 타며 즐기는 유유자적한 모습을 묘사했다.

烟氣兼雲氣,琴聲雜水聲. 斜陽乘醉返,沙路竹與鳴. 연기의 기운인지 구름까지 겹쳤는지, 거문고 소리인지 물소리가 섞이었는지. 석양 무렵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오니, 모랫길에 대밭 가마 소리쳐 우네.²⁰⁾

다음은 환벽당에 걸려있는 조자이의 한시 「유독지회(有感志懷)」(그림 11)로, 오랜만에 다시 찾은 환벽당에서의 정회를 그린 것으로, 긴 세월 속에서도 변치 않은 가경과 그에 어린 추억으로 설레는 화자의 심경을 묘사했다.



그림 10. 환벽당의 현판



그림 11. 趙子以의 한시 편액

丞相故墟何處尋, 鳴陽縣郭瑞湖濶. 清名直節賢孫繼, 餘韻遺風過客欽. 環碧亭空新易主, 棲霞堂在古猶今. 通家小子悲吟地, 老木寒波無限心. 승상께서 사신 옛터 어느 곳에 찾을는지, 명양고를 서로 위에 그의 유적 남아 있네. 맑은 이름 곧은 절개 어진 자손 이어가고, 남긴 여운 맑은 유품 지난 손이 호모하네. 비어있는 환벽정자 새 주인이 바뀌었고, 그 옛날의 서하당이 아직까지 건재하네. 통가하는 이 소자가 찾아와서 읊조리니, 늙은 나무 찬 물결에 이 마음이 설레이네.²¹⁾

환벽당은 벽간당이라고도 했으며, 정철은 출사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며 학문을 닦았고, 조대(釣臺)와 용소(龍沼)에는 김윤제를 만난 사연이 있다. 「성산별곡」은 환벽당의 가경도 담았는데, 4단은 추사로 오동나무에 환한 달이 걸린 풍경을 읊고, 조대 아래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맡겨 용소에 이르는 뱃놀이의 풍류가 목동들의 단적소리에 한층 운치를 더한다. 환벽당의 가을달밤 풍경이 평화스럽고 실감나게 묘사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조대에 세워 놓고, 그 아래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니, 홍료화 백반주를 어느 사이에 지냈길래, 환벽당 응의 못이 뱃머리에 닿았구나. 푸른 풀이 우거진 강변에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의 흥을 못 이겨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응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²²⁾

김인후의 칠언율시 중 「환벽당」은 오랜만에 환벽당을 찾아 띠집·소나무·국화 등을 본 것으로 시작된다. 한공은 당 한유(韓愈)를 이르는 것으로 이곳에 와 그가 생각났고, 소나무와 국화를 보고 도연명 「귀거래사」의 “소나무와 대나무와 국화를 심은 세 오솔길이 황폐해진 가운데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래도 아직 여전하다(三逕就荒 松竹猶存)²³⁾”는 말을 차용해 풍광을 생생히 그렸다. 미연(7·8행)에서 벼과 술을 마시며 자연과 하나 되길 희구한 심경을 담은 것은 “이백 「일하독작」 중 ‘석 잔의 술에 대도를 통달하고 한 말의 술에 자연과 합일한다(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는 명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대도와 합일은 이백의 이상적 경지이며 내키는 대로 마시면 마음은 스스로 이런 경지와 합치됨으로 해석된다(이창룡, 2007)”. 이는 이백과 같은 정신세계를 희구한 심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綠浪粼粼蘸碧天, 沙邊立馬不知年. 蓬茅自託韓公舍, 松菊猶存

陶令田. 石瀨魚蝦供俯掇, 林柯猿狖失攀緣. 何當促席軒窗畔, 斗酒相將合自然. 푸른 물결 부딪치는 소리 푸른 하늘에 잠기고, 모래톱에 말을 세웠던 췌 언제던가. 한공의 집은 삭과 띠로 덮였고, 도령의 밭에는 오히려 술과 국화가 있었네. 여울의 물고기와 새우는 허리 굽혀 잡고, 숲의 나뭇가지에는 원숭이 기어오르다 떨어졌네. 어느 때 창가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말술을 서로 권하며 자연과 어울리겠는가.²⁴⁾

4) 식영정(息影亭, 1560)

장인 임억령에게 사위 김성원이 조영해 헌정한 식영정의 당호는 임억령이 직접 지었다. 「식영정기」에 ‘시원히 바람타고 조화옹과 함께 무리되어 넓은 들에서 노닐고자 한다’고 했으니, 자연에서 구속됨 없이 살겠다는 의미다.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로 풀이(그림 12)되는 누정명은 「莊子 漁父 畏影惡迹者」라는 우화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림자와 본형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두려워 햇빛아래에서 달리며 이를 뿌리치고자 했으나, 빨리 달릴수록 그림자도 쉬지 않고 재빨리 따라왔다. 그러다가 나무 그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았다. 무릇 그림자는 언제나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그늘 아래서나 밤에는 없어지고 빛 속에서나 낮에는 나타난다... (중략).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연법칙인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는 처지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슬퍼하고 성내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이 외진 두메로 들어온 것은 꼭 한갓 그림자를 없애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바람타고 조화옹과 함께 어울리어 끝없는 거친 들에서 노니는 것이다. 그러니 식영정이라 이름 짓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²⁵⁾

식영정은 목백일홍 여울(紫薇灘)가에 있는 누정 중 언덕배기 벼랑에 위치하고, 아름답디 노송이 시원스레 에워싸 전망 또한 훌륭하다. 다음 시는 자연의 생명력을 한시로 표현한 정철의



그림 12. 식영정의 현판



그림 13. 식영정 내부의 편액들

「창계백석(蒼溪白石)」으로 임억령의 시에 대한 차운시이다. 흰 물결이 한낮에 은빛으로 아른거리며 칼랑대는 소리, 바람 불 때 포효하는 소리, 한밤 고요할 때 빗방울이 튀는 소리, 물이 불어나 팔팔대는 소리 등 원시적인 생명력을 정철 특유의 문체로 담아냈다.

細長長練, 平鋪瀟瀟銀. 遇風時吼峽, 得雨夜驚人. 곱게 다림질한 긴긴 비단 폭, 반지럽게 깔려선 은빛이 아른댄다. 바람을 만나 서는 골짜 울리고, 밤비에 사람을 놀라게 하네.²⁶⁾

다음은 임억령의 「식영정기」의 일부로, 가정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인 식영정을 찬미한 글이다.

金君剛叔吾友也. 乃於蒼溪之上, 寒松之下, 得一麓, 構小亭. 柱其隅, 空其中. 苫以茅茅, 翼以涼簟, 望之如羽蓋畫舫, 以為吾休息之所. 김군 강숙(서하당 김성원의 자)은 내 친구이다. 그가 푸른 시내의 위쪽에, 우거진 숲속 아래 한 기슭을 얻어, 조그마한 정자를 지었다. 사방 모퉁이에 기둥을 세웠으니 그 안은 공간이다. 흰 띠로 지붕을 잇고, 처마가 번쩍 들려 보기에 시원하고, 멀리서 보기에 흰 말개로 양산을 만들어 덮은 꽃배 같은데, 나에게 휴식할 곳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²⁷⁾

주인(김성원)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정철의 「성산별곡」은 식영정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시를 읊었다. 그 당시 ‘임억령 · 김성원 · 고경명 · 정철’을 식영정 사선이라 했으니, 식영정을 사선정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별개의 절경 20곳을 택해 식영정 20영(총 80수)을 제영했으니, 이는 훗날 성산별곡의 원천이다. 자신을 손님으로 허구화하고 객관적 위치에서 상이한 경험을 가진 두 인물의 대화로써 표현했다. 주인으로 표현된 김성원의 풍류를 읊은 것 같지만, 정작 자신(정철)의 흥취를 서사적 진술로써 보여준다. “주인(聽者)은 시인의 일부로 내면에 존재하는 대상일 뿐이다. 가사 속 현상적 청자는 작가가 독자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감정을 제 3의 인물을 통해 우회적으로 형상화해 감정을 순화시킴으로써 서정성을 구현한 표현방법이다. 때문에 독자는 작가의 내심에 정서적으로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마음의 갈등을 해소한다(김광조, 1987).” 성산별곡은 복합공간이나 시간적 흐름 속의 사건이 아닌 순간적 정서의 표현을 단일한 시적 공간을 통해 형상화한 서정으로서의 지향성을 대변한다(신은경, 1989).

(서술자)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면서, (손) 서하당 식영정의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이 많건마는, 어찌 한 강산을 갈수록 좋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고 아니 나오시는가. 솔뿌리를 다시 썰고 대나무 칩때에 자리를 보아, 잠시 올라앉아 어떤가하고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 나가는 듯하다가 들어가는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주인) 시내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들러 있으니,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잇는 듯 펼쳐 놓은 듯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산 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아래 헤친 경치가 철을 따라 절로 생겨나니,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이 사는 세상이로구나.²⁸⁾

다음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끊임없는 관심 때문에 진정한 처사가 되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성산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자함을 표방한 정철의 「息影亭次韻」이다. 외롭게 서 있는 식영정을 자신과 같은 처사로 의인화한 것이 특징인데, 한가한 전원생활을 즐기는 인생무상의 감정을 이입했다.

幽人如避世, 山頂起孤亭. 進退朝看易, 陰晴夜見星. 苔紋上古壁, 松子落空庭. 隣有携琴客, 時時叩竹扃. 은자가 세상을 피하여 사는 것처럼, 산 위에는 외롭게 정자가 서 있네. 들락날락하면서 아침에는 보기 쉽고, 개었다 흐렸다 하면서 밤에는 별이 보이네. 이끼 낀 무늬가 남은 벽 위에 있고, 솔방울은 빈 뜰에 떨어지네. 이웃 거문고 타는 이에 끌려서, 가끔 대나무 문짝을 두들기네.²⁹⁾

다음은 식영정에서의 유유자적한 한 때를 읊은 고경명의 「차식영정운」으로, 수레나 가래나무와 같은 특이한 소재를 쓰고 가을비와 새벽별을 배치시켜 절묘한 공간 분위기를 연출했다. ‘노을에 검은 머리가 마르다’는 은유적 표현은 자연과 합일된 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으로, 속세와 인연을 끊은 은사의 삶이 투영되었다.

緩吟從散策, 隨意更登亭. 玉軫含秋雨, 紋楸落曙星. 披霞唏綠髮, 滴露寫黃庭. 自覺塵蹤斷, 巖扉夜不扃. 느리게 읊조리며 한가히 거닐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다시 정자에 오르네. 아름다운 수레는 가을비를 맞고, 무늬 있는 가래나무에는 새벽별이 떨어지네. 노을 받으니 검은 머리 마르고, 이슬방울은 누런 뜰에 내렸네. 속세와는 발자취 끊은 것을 깨닫고, 바위 문짝은 밤에는 빗장이 없네.³⁰⁾

5) 송강정(松江亭, 1584)

송강정은 식영정 및 환벽당과 더불어 정송강(鄭松江)유적이다. 정철은 1584년(선조17) 당쟁에 휘말려 탄핵을 받고 담양 창평에서 4년간 은거하며 죽록정(竹綠亭)이란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 죽록정은 송강정의 전신으로 현재 동남향인 송강정은 1770년 후손들이 다시 증건한 것이다. 송강정 주변에는 노송과 참대가 무성하고, 앞으로는 평야가 펼쳐져 멀리 무등산이 조망되며, 앞으로 흐르는 ‘증암천’은 ‘송강 · 죽록천’으로 불린다. 송강정(정면)과 죽록정(측면)이라 서로 다르게 각자한 현판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끈다(그림 14). 누정명에서도 알 수 있듯, 송강 정철을 기린 누정이다.

정철은 송강정(죽록정)에서 식영정을 왕래하며 불우한 처지에서도 변치 않는 연군지정을 노래한 사미인곡 · 속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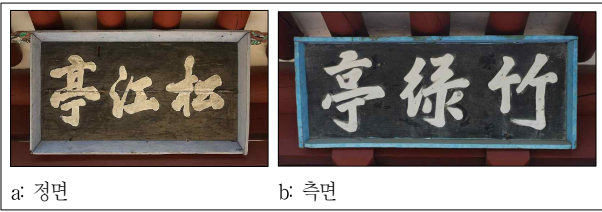


그림 14. 송강정의 현판



그림 15. 송강정 내부의 편액들

곡을 비롯한 수많은 시가를 남겼다. 기용소록에 따르면 사미인곡 제작연대는 귀향한 해인 1585년부터 2~3년 뒤이며³¹⁾,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는 가륵한 충정을 남편과 이별한 부인의 심사에 비겨 유려한 필치로 묘사한 가사문학이다. 이 시기의 정철은 실의에 빠져 음주와 영탄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정철에게 이곳은 휴식과 문학적 사색의 공간이었다. 「사미인곡」은 서사·춘원·하원·추원·동원·결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봄에 해당되는 춘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을 헤쳐내니, 창 밖의 심근 미화 두세 가지 띄어세라. 굵득 냉담훤훤 암향은 므스 일고. 황혼의 들이 조차 벼 마티 밋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저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터 너기실고. 봄바람이 잠깐 불어 쌓인 눈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이고. 황혼에 달조차 베개 밑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 님 계신 곳으로 보내고 싶네.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고.³²⁾

정철은 임억령에게 시를 배웠는데 임억령의 「憶松江別墅」를 보면,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도 늙어가는 자신을 자각한다. 모든 걸 버리고 궁벽한 시골의 자연에서 한가히 여생을 마칠 준비를 하는 노옹의 심경이 투영되었다. 송강정 주변을 노랑게 익은 벼와 강물의 은빛 물고기로 미화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綠野多紅稻, 淸江物白魚. 秋來愁疾病, 老去戀樵漁. 松下期垂釣, 山崖已卜居. 歲時歸計決, 童僕汝巾車. 푸른 들에는 붉은 벼가 많고, 맑은 강에는 흰 빛의 물고기가 많네. 가을은 왔는데 병이 걱정되고, 늙어가니 나무하고 고기 잡는 일이 그림네. 소나무 아래 낚시 드리우고 기다리며, 산언덕에

이미 살 곳을 정하였네. 돌아갈 때가 걱정될 쯤에는, 아이 돌아 너희들은 수레를 준비하려무나.³³⁾

위 시에 차운한 윤근수의 「次松江韻」은 아름다운 누정 주변에서 즐겁게 노니는 화자의 심경(1수)과 속세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탄식하는(2수) 대비의 구성으로 이뤄진 칠언절구다. 그러한 번민 속에서도 자연합일하며 시인묵객들이 시 짓기에 몰두하며 유유자적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상화된 관념적 세계로 달나라[仙界]를 소망하나 뜻처럼 되지 않는 현실을 비교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淸流環轉碧山頭, 半日亭臯作勝遊. 幽磻更窮奇絕處, 白雲紅葉滿林秋. 人世悲歡一轉頭, 詞仙長憶此中游. 翻輪已遠空遺墨, 玉宇瓊樓幾幾秋. 맑은 물이 돌아 흐르는 푸른 산머리에, 만나질 누정에 올라 돌아 다니며 노니네. 궁벽한 깊은 계곡 기묘한 곳에는, 흰 구름 아래 단풍 숲에는 가을이 무르익었네. 인간세상이 슬퍼서 탄식하며 한번 머리를 돌리니, 글 짓는 사람 오래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노니네.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니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남고, 달 속의 궁전은 아득하니 지금은 어느 때인가.³⁴⁾

5. 종합고찰

연구대상지별 편역(누정명 및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의 내용분석과 조영의식에 갖든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출된 어휘소를 밝힘으로써 도출된 내용은 총 13가지로 정리된다. 그 중 편역내용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것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보편적 제재로 파악된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는 산수예찬으로 누정문학을 탄생시킨 기록제로 작용했으며, 이는 연구대상의 모든 누정에서 발견된 제 1의 보편성이다. 이상화된 관념세계로 仙界의 도입은 제영자가 추구했던 흥중의 이상향이며, 은일처사의 유유자적한 삶을 투영시킨 예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세 번째 제영 제재로는 성현의 고사를 차용한 것, 자연과 합일(물아일체·교유·합일)하고자 한 이상적 자연관, 현실의 갈등과 울분을 달래는 탈속의 공간, 자연을 궁극적 귀의대상으로 본 내용 등이었다. 넷째는 조선이라는 특수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조영자의 학덕을 제재로 성리학적 사유를 교직해 넣은 작품과, 좌절된 자아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누정공간이 활용되었음도 파악하였다. 구별된 특수성으로는 조영자의 인물됨을 비유하거나 조선의 사대부로서의 명분을 지키고자 한 '면앙정·광풍각·송강정' 등에서 단발적으로 출현한 내용분석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누정을 출입한 수많은 소인묵객들에 의해 새로운 장르인 누정문학을 탄생시켰던, 16세기 담양 시가 문화권 누정에서 당대 지식인들이 향유했을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해 집약된 고찰결과와는 표 3과 같이 소결된다.

표 3. 종합고찰

분류	내용	누정편액(누정명·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의 내용분석	⇨ 추출 내용 또는 어휘소	⇨ 조영에 깃든 상관성	도출 결과					
면앙정 (1533)	현판	▶ 孟子 「盡心章 俯仰」에서 유래 : 하늘을 우러러 사람에게 굽어보아 부끄러움 없는 것	▶ 仰不怪於天,俯不作於人.	▶ 성현의 유명한 고사 유래(차용)	①					
	누정기·제영	倪仰亭三言歌 板上韻	조영자(송순)의 수선 및 가치관 투영	▶ 倪有地,仰有天.	▶ 조영자 학덕제제(성리학적 사유 교직)	②				
		倪仰亭歌(倪仰亭雜歌 二篇)	송 순 자연은거한 청빈, 물아일체 경지, 자연예찬	▶ 江山은 드림 더 업스니 돌너 두고 보라라. ▶ 구름 틈 靑鸞이千里를 가라라. ...雙龍이 뒤흔는 듯 긴 길을 친밧는 듯.	▶ 물아일체(이상적 자연관, 자연합일) ▶ 산수예찬, 仙界 도입(관념적 이상향)	③ ④,⑤				
		倪仰亭三十詠(倪仰亭雜歌 二篇)	면앙정 주변 가경 30景 읊은 景物 한시	▶ 造物리 현수홍야 氷雪로 꾸며내니, 瓊宮瑤臺와 玉海銀山이,	▶ 仙界 도입(이상화된 관념세계)	⑤				
		倪仰亭記(高峯集 第二卷)	기대승 호연지기와 천지의 영허함 예찬.	▶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여기에서 逍遙한 것은 끝내 올바름을 일지 않았으니	▶ 호연지기(道義에 根據를 둔 조영자의 인물됨 비유)	⑥				
		次壁上韻(梁子漸韻 次韻詩)	이안늘 가경과 상반되게 초라한 자신의 처지 비교	▶ 南來形勝此亭高, 才慙謝守裁詩妙, ▶ 秋風吹葉落蕭颯.	▶ 산수예찬(누정문학 탄생), ▶ 현실에서 좌절된 자아 위로(치유공간)	④ ⑦				
		遣閑雜錄	심수경 면앙정가 호경(四時湖夕 유려히 기록)	▶ 則鋪紋川山田野幽 魚鱖闊之狀,	▶ 산수예찬(누정문학으로 승화)	④				
奉次企村韻(石川詩集)	임억령 속세에 대한 번뇌로 괴로운 심경을 묘사	▶ 枯栢背廢墟, 窮愁何處處, 官醜滿壺清.	▶ 현실의 갈등·울분 달래(탈속)의 공간	⑧						
광풍각 (1539)	현판	▶ 北宋 黃庭堅 「濂溪詩序」에서 유래 : 주무숙 인품 비유(비 건 뒤의 바람과 달), 퇴관한 선비로서 隱者의 몸가짐	▶ 胸中灑灑如光風霽月	▶ 성현의 고사, 자존적인 삶 실현가능한 공간(生滅消長 원리)	① ⑨					
	누정기·제영	濂瀾園題草亭(松江續集)	정 철 소쇄원 창건연대 추정	▶ 我生之歲立斯亭, 人去人存四十齡.	▶ 가경 속에서 소요한 시절 회고(추억)	④,⑩				
		濂瀾亭韻(河西全集)	김인후 광풍각에서 한가하고 자유로운 서정묘사	▶ 花風香谷口, 雪月露山陰.	▶ 산수예찬, 유유자적한 삶	④,⑪				
		濂瀾園四十八詠(二詠, 松溪文房)	김인후 동창이 밝은 계곡 주변의 문방에서의 심경	▶ 精思隨隱僻, 妙契入鳶魚.	▶ 자연은 궁극적 귀의 대상, 산수예찬	⑫,⑬				
濂瀾亭即事(河西全集)	김인후 소쇄원 예찬(대숲의 바람과 소쩍새 울음, 옅은 그늘과 밝은 달, 휘중의 시와 노래)	▶ 酒熟乘微醉, 詩成費短吟, ▶ 數聲聞半夜, 啼血有山禽.	▶ 유유자적한 삶 속에서 시(자연합일) ▶ 현실의 갈등·울분 달래(탈속)의 공간	⑫,⑬ ⑧						
환벽당 (1555)	현판	▶ 푸름(碧)을 사방에 가득 두른(環) 집 : 한자어에서 유래 : 靑山綠水(창계천(紫薇灘)과 별미(星山)의 배치)를 비유	▶ 靑山綠水	▶ 푸르름 청송(산수예찬)	④					
	누정기·제영	琴聲雜水聲	임억령 유유자적한 삶과 풍류의 서정 묘사	▶ 琴聲雜水聲, 斜陽乘醉返.	▶ 유유자적한 삶(거문고, 술, 친구)	⑪				
		有感志(權尙夏 寒水齋集)	조자이 환벽당의 옛 시절을 회고한 감회 기록	▶ 樓霞堂在古猶今, 通家小子悲吟地.	▶ 변치 않는 자연과 환벽당에서 추억회상	④,⑩				
		星山別曲(秋詞)	정 철 별미의 평화스러운 산수경관(四季) 묘사	▶ 석양의 흥을 못 이겨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 산수예찬, 仙界도입(이상화된 관념세계)	④,⑤				
環碧堂(河西全集 七言律詩)	김인후 자연합일 화구, 천지의 정신세계 추구	▶ 何當促席軒窗畔, 斗酒相將合自然.	▶ 자연합일(大道와合一, 이상적 경지)	③						
식영정 (1560)	현판	▶ 莊子 「漁父 畏影惡迹者」 우화에서 유래 :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 그림자와 본형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내용 : 자연을 벗 삼아 구속됨이 없이 살고자 하는 의지(息影亭記)	▶ 漁父 畏影惡迹者	▶ 성현의 고사(우화 유래)	①					
	누정기·제영	息影亭記 全文(1563)	임억령 가경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식영정 찬미	▶ 寒松之下,得一麓構小亭...以爲吾休息之所.	▶ 산수예찬, 유유자적한 삶	④,⑪				
		蒼溪白石(次息影亭韻) : 松江原集 卷之一 五言律詩	임억령 시에 대한 차운시 원시적 생명력을 정철 특유의 문체로 표현	▶ 平鋪瀟瀟銀, 遇風時吼峽.	▶ 자연의 생명력(궁극적 귀의 대상, 자존적 삶 가능한 공간), 산수예찬	⑫,⑬				
		息影亭次韻詩(松江原集 卷之一)	정 철 별미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한 의식 대변	▶ 幽人如遊世, 山頂起孤亭.	▶ 누정을 처사(자신)로 의인화, 유유자적	⑪				
		星山別曲	식영정의 四時를 서사적 진술로써 투영	▶ 하늘의 은하수를 누가 베어내어.. 들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이 사는 세상이로구나.	▶ 식영정에서 정철의 흥취(유유자적), 산수예찬, 仙界 도입(이상화된 관념적 세계)	⑫,⑬ ⑤				
次息影亭韻(高峯集 第三卷)	고경명 속세와 인연을 끊은 隱士의 삶이 투영	▶ 綉纈從從策, 巖扉夜不扃.	▶ 유유자적, 현실에서 좌절된 자아(치유 공간)	⑪,⑦						
송강정 (1584)	현판	▶ 鄭松江유적 : 정철을 기려, 정철의 호 松江에서 유래	▶ 松江	▶ 조영자 학덕 제제(성리학적 사유 교직)	②					
	누정기·제영	思美人曲(春怨部, 松江集 1588)	정 철 임금을 그리는 충정을 유려한 필치로 묘사	▶ 더 미화 것거 내어 님 거신 더 보내오져	▶戀君之情	⑬				
		憶松江別墅(石川詩集)	임억령 궁벽한 시골의 자연에서 한가하게 여생을 마칠 준비를 하는 심경 투영	▶ 松下垂垂釣, 山崖已卜居... 童僕汝山車	▶ 자연의 생명력(자연귀의), 유유자적한 삶	⑫,⑪				
次松江韻(月汀集)	윤근수 달나라의 신선세계(仙界)를 소망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대비해 표현	▶ 半日亭亭作勝遊, 玉宇瓊樓渺幾秋.	▶ 가경 속에서 노니는 화자의 심경(1수) ▶ 仙界(달나라) 염원하나, 현실비판(울분달래)	④,⑪ ⑤,⑧						
대상지별 보편성과 특수성	결과	도출된 내용 (13가지)			면앙정	광풍각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빈도
	①	성현의 유명한 고사에서 유래 ⇒ 차용, 새롭게 승화시킴			○	○		○		3
	②	조영자의 학덕을 제제 ⇒ 성리학적 사유 교직화 작품			○				○	2
	③	물아일체·물아교용·물아합일(자연합일) ⇒ 누정조영 미의식, 이상적 자연관			○	○		○		3
	④	산수예찬, 아름다운 자연 찬미 ⇒ 新장르(누정문학) 탄생의 기록체 ■ 보편성			○	○		○	○	5
	⑤	仙界的 도입 (이상화된 관념세계) ⇒ 관념적 이상향			○			○		4
	⑥	호연지기(浩然之氣), 도의(道義) 근거 ⇒ 조영자의 인물됨 비유			○					1
	⑦	현실에서 좌절된 자아 위로·치유 ⇒ 상징적 공간, 재탄생된 새로운 공간			○			○		2
	⑧	현실의 갈등·울분 달래 ⇒ 탈속 공간 (이념·사유가 반영된 의식 공간)			○	○			○	3
	⑨	생멸소장(生滅消長) 원리 ⇒ 자존적 삶을 실현 가능케 해주는 공간				○				1
	⑩	변치 않는 가경 속에서 소요하던 시절의 회고(추억)						○		2
	⑪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 세속에서 해방 ⇒ 은일한 처사(處士)의 즐거움						○		4
	⑫	자연은 궁극적 귀의 대상, 자연의 생명력 ⇒ 자연귀의						○		3
⑬	연군지정(戀君之情) ⇒ 조선의 선비(사대부)로서 갖출 유교 덕목							○	1	

IV. 결론

본 연구는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편역에 반영된 조영자의 자연인식과 서정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이다. 연구 대상지의 현지답사를 통해 누정명·누정기·누정계영시 등을 선행 파악한 후 주변경관을 중심으로 조영 당시 향유했을 그 시대인의 미의식과 자연관이 배태된 조영의식에 관해 접근한 바,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명은 성현이 남긴 유명한 고사에서 유래한 문구 차용과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예찬이 가장 보편적인 제재였다. 또한, 16세기 조선이라는 특수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조영자의 학덕을 제재로 성리학적 사유를 교직해 넣은 작품들이 그 다음으로 잦은 빈도를 나타냈다. 특히 산수예찬은 누정문학을 탄생시킨 기폭제로 작용했으며, 연구대상지의 모든 누정에서 발견된 제1의 보편적 제형요소로 파악되었다.
2. 16세기 누정문학에 관한 기록은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연과 합일[物我一體·交融·合一]하고자 한 이상적인 자연관이었으며, 인간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인공물인 누정을 조영하게 된 미의식의 기저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산수유기가 당시 활발히 지어진 것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3. 성리학적 사유가 정착된 16세기의 자연은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생멸소장'의 원리이자 자존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궁극적 귀의의 대상으로 여겨졌기에, 16세기 담양지역 누정에서도 수많은 출입소인문학객들에 의해 자연예찬시가 끊임없이 탄생되고 읊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조영자의 인물됨을 비유하거나, 조선의 사대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과 명분을 누정문학이라는 신(新)장르로 표출한 '면양정·광풍각·송강정' 등에서 단발적으로 출현한 내용분석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4. 누정에서 행해진 문학행위 중 선계의 도입은 현실에서 좌절된 자아를 위로하는 상징적 치유수단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뿌리 깊은 성리학의 구조나 조선사대부가의 사유체계를 고수하면서도, 현실에서 좌절된 자아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상징적 공간으로의 부활을 뜻한다. 이렇듯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빌어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가탁했기에 누정은 현실의 갈등과 울분을 달래는 탈속의 공간임을 함의한다.
5.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에서의 누정문학은 신분적 기반을 활용해 향촌생활 중 유흥상경의 흥취를 노래하며, 이상실현의 좌절에서 오는 고민이 동반된 작품들임을 확인했다. 은일한 퇴관사대부의 고민을 가경을 매개로 토로하며, 좌절된 자아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문사철을 섭렵한 지식인이 낙향해 풍광이 수려한 곳에 누정을

짓고 소요하며 시를 읊는 것은 모범적 지성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만 했던 부담감에서의 탈출구였다. 즉, 16세기 담양 시가문화권의 누정은 이상화된 관념적 세계이자 이념과 사유가 반영된 의식의 공간이었다.

본 연구는 어떤 공간을 장소로 만들 때 서양이 시각적 질을 높여 만드는데 반해, 한국의 전통공간은 의미를 부여하여 조영되기에 의미론적 접근 방법만이 우리 전통공간의 본질을 올곧게 파악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작업이었다. 낯선 한문으로만 스쳐 지나던 편역에 새겨진 무수한 기록과 시문들에 관심을 갖는 동안 내재된 무한한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왔고, 특수 장르인 누정문학으로서 가치 또한 지대함을 인식했다. 지배층만이 독차지했던 누정미학을 현재 우리는 계층의 우열 없이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암울한 시대적 전환기에 살던 조선왕조 최고의 지성인들의 풍류공간이었던 누정은 문화재로서의 위상과 향후 역사적인 보존가치 및 지역의 브랜드로서 보존·관리방안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 주 1) 정철성(2000)은 16세기 잇단 사회로 퇴관한 선비들이 담양지역에 누정을 조영해 사회를 열고 풍류를 즐겨 시가문화가 형성되었고, 사회의 활동무대였던 누정과 문학적 대상이었던 이 지역의 명승지를 포함한 시가문화라는 공통적 문화주제를 갖는 권역을 통칭한다고 했다.
- 주 2) Edward Charles Relph(1944): 영국 Wales 生. 토론토대 지리학과 교수. 저서로 『장소와 장소상실(Place and Placelessness), 1976』.
- 주 3) 원문은 「郭熙, 林泉高致 山水訓, 簡易集 第八卷」이며, 해석은 「김행용(1987). 韓國壽石美의 探究方法論에 대한 小考, 月刊壽石 vol.8」에서 인용.
- 주 4) 원문은 「宋純, 俛仰集 俛仰亭歌, 卷之三」이며, 해석은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article>)의 2009년 6월 4일 뉴스 기사문에서 인용.
- 주 5) 「孟子, 盡心章 俯仰」.
- 주 6) 원문은 「李安訥, 東岳集, 俛仰亭 次梁子漸韻, 卷之九 潭州錄」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정: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 주 7) 원문은 「宋純, 俛仰亭雜歌 二篇 卷之四」이며, 해석은 「이완근, 이학준, 희망의 문학교육, <http://www.seelotus.com/gojeon/>」에서 인용.
- 주 8) ① 추월산의 푸른 절벽(秋月翠碧), ② 몽선산의 푸른 소나무(夢仙蒼松), ③ 용구산의 저녁구름(龍龜晚運), ④ 불대산의 낙조(佛臺落照), ⑤ 용진산의 기이한 산봉우리(湧珍奇峰), ⑥ 서석대의 아지랑이(瑞石清風), ⑦ 독바위의 우뚝한 모습(巖巖孤標) 등.
- 주 9) 원문은 「宋純, 上揭書」이며, 해석은 「이강로, 장덕순, 이경선 共著(1987).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I, 시인사」에서 인용.
- 주 10) 원문은 「沈守慶, 遺閑雜錄」이며, 해석은 「서울성심여고 역사교사 이창호의 역사교육, <http://chang256.new21.net/board/>」에서 인용.
- 주 11) 원문은 「宋純, 上揭書」이며, 해석은 「서울승실고 국어교사 이향우의 언어영역, <http://hyangwoo.net/mxeunang.htm>」에서 인용.
- 주 12) 원문은 「宋純, 上揭書」이며, 해석은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옛이야기 사랑방, <http://cc.kangwon.ac.kr/~sulb/>」에서 인용.
- 주 13) 원문은 「林德齡, 石川詩集 奉次企村韻, 石川先生詩集卷之三 五言四韻」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정: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 주 14) 「黃庭堅, 瀟溪詩 序/李穡, 牧隱集, 牧隱文藁 第十六卷」.
- 주 15) 「孔德璋, 北山移文」.
- 주 16) 원문은 「鄭澈, 瀟灑園題草亭, 松江續集 卷之一, 七言絕句」이며, 해석은 「소쇄원, <http://www.soswaewon.co.kr/>」에서 인용.
- 주 17) 원문은 「金麟厚, 河西全集, 瀟灑亭韻, 卷之八, 五言律詩」이며, 해석은 「소쇄원, <http://www.soswaewon.co.kr/>」에서 인용.

주 18) 원문은 「金麟厚, 河西全集, 瀟灑園四十八詠 第園二在詠 枕溪文房 昌平縣南十里, 卷之五, 五言絕句」이며, 해석은 「한국디지털영상방송국(KDBS-TV) 문학산책, <http://www.kdbs-tv.kr/bbs/>에서 인용.

주 19) 원문은 「金麟厚, 河西全集卷之八, 瀟灑亭即事戊戌, 五言律詩」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장: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주 20) 원문은 「林億齡, 上揭書」이며, 해석은 「담양군청 문화관광, <http://tour.damyang.go.kr/bbs/>에서 인용.

주 21) 원문은 「權尙夏, 寒水齋集 卷之十四」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장: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주 22) 원문은 「鄭澈, 星山別曲 秋詞 松江別集追錄遺詞」이며, 해석은 「목포홍일고 국어교사 김광복의 고전문학, <http://hongkgh.x-y.net/gojon/>에서 인용.

주 23) 「崔岳, 雙翠軒記, 簡易集 第二卷」.

주 24) 원문은 「金麟厚, 環碧堂, 河西全集 卷之十 七言律詩」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장: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주 25) 「李夏坤, 息影亭記, 頭陀草 頭陀草冊十六 雜著」.

주 26) 원문은 「鄭澈, 松江集, 息影亭雜詠 卷之一 五言絕句」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장: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주 27) 원문은 「林億齡, 息影亭記 全文, 1563」이며, 해석은 「이강로, 장덕순, 이경선 共著(1987),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I, 시인사」에서 인용.

주 28) 「鄭澈, 星山別曲, 松江別集追錄遺詞」.

주 29) 「鄭澈, 次息影亭韻, 松江原集 卷之一 五言律詩」이며, 해석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문화관광, <http://culture.gwangsan.go.kr/>에서 인용.

주 30) 원문은 「高敬命, 次息影亭韻, 靈峯集 卷之三」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장: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주 31) 「鄭澈, 崎翁所錄, 松江別集 卷之七」.

주 32) 원문은 「鄭澈, 思美人曲, 春怨部, 松江集 1588」이며, 해석은 「한국 가사문학DB, <http://www.gasa.go.kr/>에서 인용.

주 33) 원문은 「林億齡, 憶松江別墅, 石川先生詩集卷之三」이며, 해석은 「이창룡(2006).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시세계. 푸른사상」에서 인용.

주 34) 원문은 「尹根壽, 次松江韻, 月汀先生集卷之二」이며, 해석은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장: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에서 인용.

인용문헌

1. 고영진(2000).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역사적 맥락. 사회연구, 광주사회조사연구소, 1권.
2. 고영진(2007). 호남사람의 학맥과 사상. 서울: 도서출판 혜안.
3. 권정은(2003). 누정가사의 공간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권.
4. 금장태(1995).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전통문화연구회.
5. 김광조(1987). 조선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 연구: 시적담화의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동준(1994). 16세기 누정한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봉렬(2006).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2 : 삶과 삶의 공간. 파주: 돌베개.
8. 김신중(2001).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서울: 다지리.
9. 김일두(1979). 명찰편액순력(名刹扁額巡歷). 서울: 한진출판사.
10. 김행용(1987). 韓國壽石美의 探究方法論에 대한 小考. 月刊壽石, 8권.
11. 변학수(1999). 문학치료와 문학적 경험. 독일어문학, 한국독일어문학회지, 10: 267-300.
12. 성기욱(1987). 고산시기에 나타난 자연인식의 기본 틀. 고산연구, 1: 205-248.
13. 신상섭, 노재현, 최형철(2009). 영모정(영벽루)에서 발견된 누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2): 31-42.
14. 신은경(1989). 사설시조의 시학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신은경(1995). 풍류방예술과 풍류집단. 문학과 사회집단, pp.171-208.
16. 심경호(2006). 한시의 세계. 서울: 문학동네.
17. 오용원(2006). 누정문학의 양식과 문체적 특징: 누정 상량문과 기문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4: 191-221.
18. 오용원(2007). 누정기의 문체적 특성과 공간적 상상력. 어문논총, 47: 407-436.
19. 윤기섭(1999). 가사의 동양미적 표현. 동대논총(동덕여자대학교), 1(1): 9-27.
20. 윤일이(2005). 송순의 변양정과 16세기 누정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4): 29-39.
21. 이강로, 장덕순, 이경선(1987).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I. 서울: 시인사.
22.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중기 귀거래와 안분. 서울: 휴머니스트.
23. 이창룡(2006).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시세계. 서울: 푸른사상.
24. 이창룡(2007).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남도의 시장: 영남·호남지방. 푸른사상.
25. 이현우, 김재식, 김경문(2009). 추사고택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1): 84-97.
26. 정익섭(1988). 16세기의 호남가단 연구.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지, 13: 25-49.
27. 정철성(2000). 무등산권 시가문화유적의 보전 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 한창원(1997). 16세기 사람의 강호시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 Tuan Yi-Fu(1999). 공간과 장소. 서울: 대운. pp.167-286.
30.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홈페이지. <http://cc.kangwon.ac.kr/~sulb>
3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홈페이지. <http://culture.gwangsan.go.kr>
32. 담양군청 홈페이지. <http://tour.damyang.go.kr/bbs>
33. 목포홍일고 국어교사 김광복 홈페이지. <http://hongkgh.x-y.net/gojon>
3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
35. 서울성심여고 역사교사 이창호 홈페이지. <http://chang256.new21.net/board>
36. 서울승실고 국어교사 이항우 홈페이지. <http://hyangwoo.net/meunang.htm>
37. 소쇄원 홈페이지. <http://www.soswaewon.co.kr>
38. 이완근 이학준 문학교육 홈페이지. <http://www.seelotus.com/gojeon>
39. 프레시안 웹뉴스 홈페이지. <http://www.pressian.com/article>
40. 한국가사문학DB 홈페이지. <http://www.gasa.go.kr>
41. 한국디지털영상방송국(KDBS-TV) 홈페이지. <http://www.kdbs-tv.kr/bbs>

원고접수: 2010년 7월 5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9월 7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